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The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Among Urban Households Based on a System's Approach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金 娟 廷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Yeon Jeong Kim*

충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교육학과
부교수 : 金 純 美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 Soon Mi Kim*

— 목 차 —

| | |
|--------------------|--------------------------------|
| I. 서 론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II. 이론적 배경 | IV. 결과 및 해석 |
| 1. 체계론적 접근의 개념적 틀 | 1. 투입변수와 변환변수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 |
| 2. 재정복지의 개념 및 측정방법 | 2.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제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 |
| 3. 자원과 요구의 투입 | 3.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제 변수들의 인과적 관계 |
| 4. 가계관리의 개념과 영역 | |
| 5. 연구문제의 설정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1. 조사도구 | |
| 2. 자료의 모집 및 분석방법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ausal relations of resources and demand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and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among urban households by applying a system's approach.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whose respondent were 455 housewives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ANOVA, F-test,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

1) The level of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among urban households exceeded the middle level. It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resource variables such as age of housewife, education level of housewife, housewife's occupation, househead's occupation, per capita income, debt/net asset ratio, and according to demand variables such as aspiration, expectancy, perception of financial progress, relative deprivation.

2) The level of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among urban households according to level of family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y had significant differences. Therefore, the higher family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y, the higher level of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3) Among all variables affecting the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among urban households, aspiration had the highest relative influence on the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and per capita income, occupation of househead and family financial management variables were in this order.

4) Among all variables affecting the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among urban households aspiration, occupation of househead, per capita income and financial management variables had direct effect on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Besides housewives' education level, aspiration and per capita income had indirect effect on it through family financial management.

I. 서 론

오늘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정의 '재정복지' 개념은 개인 및 가정생활의 발전과 향상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주관적인 행복, 만족도뿐 아니라 객관적인 경제적 후생까지도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이다(Vermunt, Spanns와 Zorge, 1989 ; 3).

이러한 가정의 복지개념중에서 Strumple(1973 ; 98)과 Williams, Nall과 Deck(1986 ; 187)은 '경제적 지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으며, Andrews 와 Withey(1976)는 인간의 주관적 가치인 가정의 경제적 복지가 생활의 질은 평가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제시하면서 그것은 "삶의 조건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재정복지의 개념은 객관적·주관적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특히 재정상황의 심리적 인지를 의미하는 주관적 재정복지는 객관적·주관적인 사회경제적도와 비교기준적도의 관계에서 측정할 수 있다(Michalos, 1983 ; Diener, 1985).

생활향상의 최종목적을 재정복지로 볼때, 가정은 물가상승이나 실업율, 세금증가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의 생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계관리를 행함으로써 가정의 안정과 생활표준의 향상을 이루려고 한다(Godwin과 Carrole, 1986). 이와 같은 가계관리와 재정복지와의 관계는 객관적·주관적 재정복지가 개인의 합리적 가계관리 능력에 따라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서(Williams, 1985 ; Godwin과 Carrole, 1986 ; Lown, 1986)볼 수 있다.

가계관리와 주관적 재정복지의 관계를 체계요소간의 관계로 보고 자체역동적으로 변화·적응하는 체계론을 적용하는 경우, 각 가정의 바라는 목표와 산출된 재정복지의 비교 및 평가를 통해 적응과 조정을 가능케하고 끊임없는 가계관리의 문제점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복지 및 가계관리와의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가계관리 각영역의 특정부분을 기술적으로 다룬 연구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 인구통계학적, 사회심리적변수인 투입과 특별한 가계

관리실행의 변환, 그리고 가계관리자의 만족도인 산출의 세변수간의 관계 및 유동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각 기초적인 재정 영역의 선행연구를 기본으로 체계론의 적용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경제문제 및 가계관리과정의 조정 및 방법상의 개선 및 증진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 재정복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체계론적 접근의 개념적 틀

가족자원관리의 개념은 Paolucci, Hall과 Axinn (1978), Bubolz와 Sontag(1979), Gross, Crandall과 Knoll(1980), Deacon과 Firebaugh(1988)등 몇몇 학자들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발달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체계론적 접근을 들 수 있다.

가족자원관리 개념을 설명하는 체계론적 접근 방법 중에는 가정을 역동적 개방체계로 인식한 Deacon등의 체계론과 생태체계로서 가정을 인식한 Paolucci등의 생태론이 대표적이다. 두 모델은 가족단위에 대한 광역환경의 역동적 영향력 제시, 행동의 투입·산출의 흐름과 환원의 기제 사용, 내적 활동의 개념은 다르지만 계획과 수행을 중요한 관리행동으로 인식한 유사점을 가진다. 그러나 체계론이 가족체계를 인적, 관리적 하위체계로 분류하고 가족의 가치와 목표를 관리적 하위체계에 주어진 투입요소로 인식한 반면, 생태론은 모든 가정생활을 가족조직화나 가족체계로 통합하였고 가치를 가족자원관리의 계획과정내의 원천적 발달단계로 인식하는 두 모델간의 차이점도 있다(Heck과 Douthitt, 1982 : 268-269). 전체적으로 체계론은 그 논리적 과정의 측면에서 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 생태론은 관리영역에 대한 효율성보다는 최적의 발달단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의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Deacon등(1988)의 체계론의 장점은 첫째, 가족자원관리의 각 변인의 상호관계를 시간연속

선상에서 제시해 줄 수 있고 둘째,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특수한 문제 및 관리과정에 관련된 연구모델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체계 모델은 체계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 또는 경험적 기준을 제공하고 전체적으로는 가족단위의 복합성을 조직화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관리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Heck, 1983 : 118).

Hough(1979)는 이러한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론을 위계적 체계모델(Hierachial System Model)로 수정하여 변환과정을 세분화한 분석적 방법을 -계획과 수행을 표준적 계획, 전략적 계획, 계획의 수행과 평가의 4가지 위계적 기능수준으로 수정한- 제시하였다. 위계적 체계모델은 위계적 단계를 통하여 관리순서가 조절되는 융통성을 가지며 문제해결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획의 포괄적 의미와는 대조적으로 수행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고 산출단계인 평가를 변환 과정에 포함시킨점에서 전체 관리체계의 논리성이 부족하다.

이상의 모델들을 살펴볼때, Deacon등의 체계론을 투입과 산출에, Hough의 위계적 체계모델을 변환에 적용한 부분적 수정과 보완을 통하여 그림 1과 같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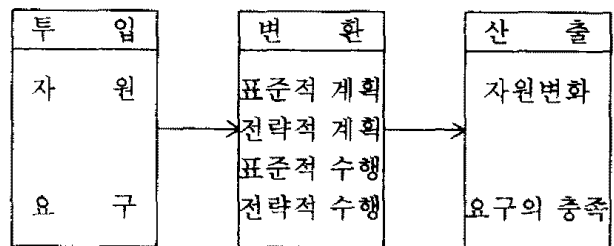


그림 1. 체계론의 개념적 틀.

2. 재정복지의 개념 및 측정방법

가정생활의 발전과 향상을 나타내는 개념으로는 행복(Happiness)(Chekolah, 1975), 만족도(Satisfaction)(Michalos, 1982), 후생(Welfare)(Yuchman, 1976), 복지(Well-being)(Campbell등, 1976) 등의 다양한 개념이 사용되어 왔다(Diener, 1984 : 542-545).

행복개념은 “자신의 생활의 질에 대한 전체적 평가”(Shin과 Johnson, 1978)이며 생활만족도개념은 각 생활영역에서의 바라는 삶에 대한 각각의 표준에 의해 정해지는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나 경제복지를 주관적 측정으로 한 개념이다(Diener, 1985 : 543). 한편 경제적 만족감으로 인식되는 후생개념은 물적 객관적 측면의 성격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학자들에 의해 주관적 만족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Vermunt와 그의 동료들, 1989 : 1). 따라서 재정복지개념은 주관적인 행복이나 만족감 개념과 객관적 경제적 측면의 후생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의미의 개념이므로 객관적, 주관적 측정기제를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

재정복지를 위한 최근의 객관적 측정기제는 가계의 총자산과 부채의 차이인 순자산과의 비율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Griffith, 1985 ; Prather, 1990 : 57), 경제요인간의 상대적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일반가정의 재정상태, 지불능력, 순자산 유동성 평가에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가정과의 비교로 측정방법의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Prather, 1990 : 53). 또한 객관적 측정기제와 함께 사용되는 주관적 측정기제에는 Cantrill(1965)의 자아준거 성취척도, Feld와 Gurin의 Gurin scale 등의 단일지표가 있으며, 다항목지표는 Campbell등(1976)의 6개 부문의 생활에 대한 일반 영향지표(Index of General affect)가 있다. 이처럼 주관적 재정복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방법론적 기제와 함께 주관적 재정복지를 구성하는 각 하위 영역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같은 재정복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평가는 저자가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고 후자는 자료획득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더욱 포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Fletzer와 Lorenz, 1984 : 343).

Fowler(1972), Williams, Nall과 Deck(1976)은 주관적 재정복지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 적정도와 재정문제곤경도의 결합을 제시하였고, 또한 Wilhelm, Iams와 Rudd(1987 : 16)는 가계의

재정적 안정변수로 소득적정도, 생활수준 만족도, 현재 경제지위의 지각을 들었고, Davis와 Helmick(1985 : 126), Beutler와 Mason(1987 : 5)은 가족 자원관리의 목표로 Metzen(1980)의 생활의 질의 한 척도인 재정안정도를 적용하였다. Titus, Fanslow와 Hira(1989 : 310)는 현금 지불능력과 순자산만족의 재정적 안정을 재정복지요인으로 보았다.

위에 제시된 선행연구들의 측정기제중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하여 설명력이 크고 상호관련이 높은 변수로는 가계소득적정도, 재정문제곤경도와 재정안정도의 세개념이 대표적이다.

가계소득적정도(Income Adequacy)는 재정복지의 구성 요소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인간생활의 객관적, 환경적 조건과 주관적 가치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계소득에 대한 주관적 심리적 인지도이다(김숙이, 1988 : 17). 재정문제곤경도(Financial Problems)는 기대수준향상과 물가상승이 가족의 자원관리에 긴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긴장을 해결하려는 가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소득수요가 소득공급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Mitchell, Bullard와 Mudd, 1962 ; Williams, Nall과 Deck, 1976 : 185에서 재인용). 재정안정도(Financial security)는 재정적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나 은퇴시 적절한 재정자원의 확보 정도를 의미한다. 가족구성원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 적절한 생활수준, 미래의 안정, 생활수준 향상등의 의미에서 재정적 안정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재정적 안정은 소득과 저축의 비율, 재정적 위협에 대한 준비도, 일반 소비수준, 순자산만족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Davis와 Helmick, 1985 : 127).

3. 자원과 요구의 투입

가족의 관리하위체계에서 투입은 목표나 사건의 요구와 인적·물적 자원으로 구성된다. 체계모델에서 요구는 목표지향적 지표로서 개인의 가치에 기본을 둔 개인행동의 동기부여 요소이며 체계과정을 통하여 요구의 충족을 이룬다. 자원은 이러한

요구의 충족을 위한 도구적 수단이다. 이러한 투입요소인 자원과 요구의 분리는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객관적 자원요소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어 왔으나 이러한 자원외에 개인의 가치가 개입된 주관적 기준인 열망성취도, 기대성취도, 경제수준 상승감, 상대적 박탈감의 비교기준도 최근연구에 포함되고 있다.

일반가정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상황인 자원변수는 영향력 있는 설명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었다(Hafstrom과 Dunsing, 1973; Davis와 Helmick, 1985).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물적자산등의 지표만으로는 설정되지 못한다는 설명하에 많은 연구들은 재정복지에 대한 개인적 인지변화를 중요변수로 설정하였다. Yuen(1976), Michalos(1983), 김숙이(1988)의 선행연구에서 열망성취도, 기대성취도, 경제수준상승감으로 설명되었고, 주위환경과의 비교인 상대적 박탈감 역시 Diener(1984), Diener와 Emmons(1985)의 연구에서 중요변수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Wilson(1960), Michalos(1983)등은 객관적 상황이 주관적 과정에 의해 중재되어 재정복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Kammen 과 Campbell(1982)도 객관적 요인들이 주관적 복지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고 하여(Emmons와 Diener, 1985: 157-160), 체계론의 투입요인으로써 자원과 요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4. 가계관리의 개념과 영역

가정은 현재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요구와 재정복지를 달성하려는 요구간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또한 미래의 재정적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가계관리를 하게 된다(Hefferan, 1982: 48). 가계관리는 특히 재정복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자원관리 체계의 관리적 하위체계내에서 인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자원을 배분, 조정하는 조직적이고 목표지향적 체계이다(Nickell, Rice와 Tucker, 1976; 김순미, 1986: 7). 따라서 이용할 자원과 자원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관리능력, 효율적 자원사용을 적용하는데 있어 가정의 내적 및 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Balakrishnan, Firebaugh와 Stafford, 1986, 185-186).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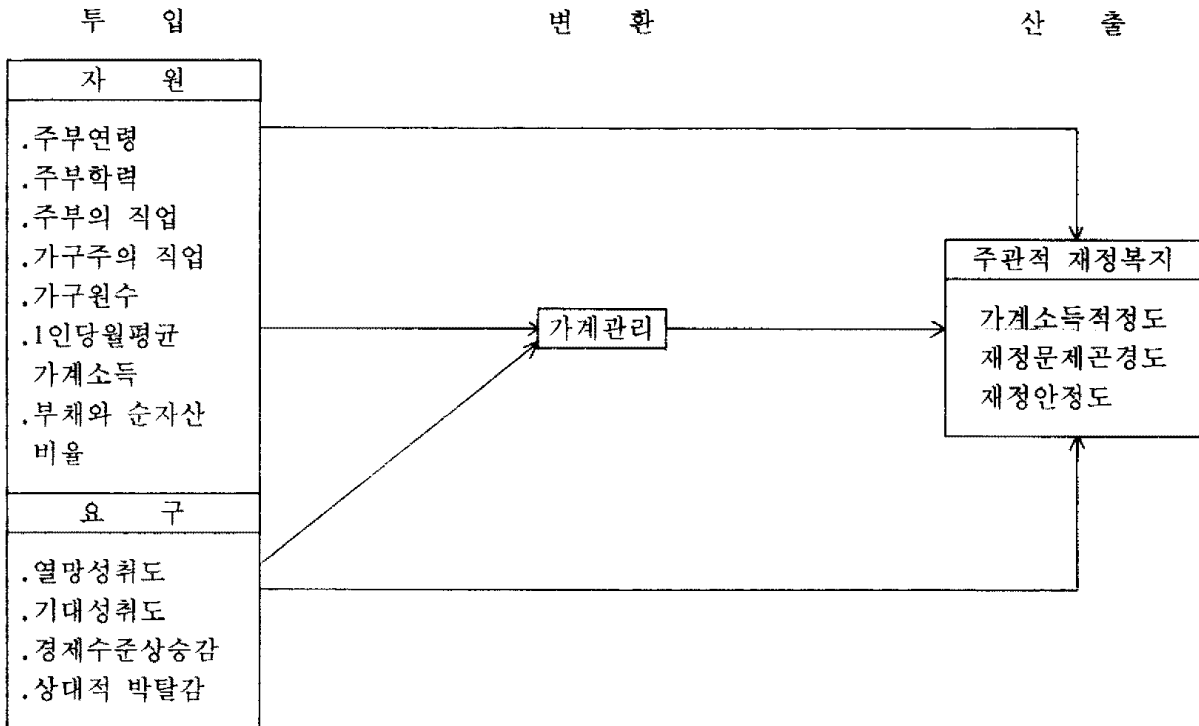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가계관리의 목표는 가계를 이끌어가는 행동원리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요구를 찾아내어 분석, 비교 및 정리 검토를 하는 것이며, 가정에서 예측할 수 있는 요구의 변화를 계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가계관리는 개인보다는 가정의 재정관리를 의미하며 구매, 소비, 생산, 공급등의 경제적 기능과 금융수단의 화폐기능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움직인다. 따라서 가계관리의 영역은 이러한 기능에 의해 금전관리, 저축관리, 지출관리, 자산관리로 구분되거나(Ferber, 1973 : 30) 또 한편으로는 재정적 작용으로 간주되어 소득, 저축, 차입, 대출, 투자, 보험, 지출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Nickell, Rice와 Tucker, 1976 ; 김순미, 1986 : 7에서 재인용).

5. 연구문제의 설정

주관적 재정복지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변수와 변환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도시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는 투입변수인 자원변수와 요구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2〉 도시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는 가계관리능력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3〉 도시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4〉 도시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의 관련변수와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1) 투입변수

가. 자원변수

자원변수는 주부연령, 주부학력, 주부의 직업, 가구주의 직업, 가구원수,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부채대 순자산의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부의 직업, 가구주의 직업은 김영모(1980)의 분류를 근거로 하여 전문직과 비전문직으로 분류하였다.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은 총가계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누었고, 부채대 순자산의 비율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부채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나. 요구변수

요구변수는 최고의 생활수준을 10점, 최하의 생활수준을 0점으로 한 11칸의 사다리척도를 기초한 Cantrill(1965)의 자아준거적 성취척도를 사용하였다. 열망성취도는 개인이 궁극적으로 열망하는 소득 및 생활수준을 최고점인 10점을 전제하고 스스로 느끼는 현재 소득수준을 평가하게 한 후 10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기대성취도는 5년후에 예상되는 가정의 기대소득을 평가하도록 한 후 현재 소득수준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또한 경제수준상승감은 5년전의 소득을 평가하도록 한 후 현재소득과의 차이를 통하여 상대적인 소득의 향상을 파악하였고, 상대적 박탈감은 주위 이웃이나 친지의 가계소득에 대한 인지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후 응답자의 가계소득의 차이를 통하여 상대적인 비교기준을 파악하였다.

2) 변환변수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Troelstrup과 Hall(1978)의 금전관리기능척도, 정진화(1985) 및 Turner(1977)의 연구를 기본으로 한 윤정혜(1986)의 소비자 기능척도, Titus, Fanslow와 Hira(1989)의 계획지표와 수행지표 및 Ferber(1973)의 금전관리, 저축관리, 지출관리, 자산관리를 기본으로 구성하였다. 각문항은 Ferber의 4 가계관리영역을 설정한 후, Hough의 표준적 전략적 계획과 표준적 전략적수행의 각 단계를 적용하여 16문항의 5점 Likert Type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6점에서 8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관리행동의 능력이 높다.

Cronbach's 의 신뢰도계수는 0.886으로 나타났다.

3) 산출변수

주관적 재정복지척도는 가계소득적정도, 재정

안정도, 재정문제곤경도를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고, Cronbach's 의 신뢰도계수는 0.610으로 나타났다.

가. 가계소득적정도

주부의 주관적 가계소득적정도 척도는, 미국의 NC-90 "빈곤가계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프로젝트를 기초로 구성되었다(Williams, Nall과 Deck, 1976). Likert Type 척도로 구성된 가계소득적정도 문항은 가계소득으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정도를 묻는 문항, 가계소득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항, 또한 소득수준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평가를 묻는 7점 얼굴척도 문항이다. 가계소득적정도 점수는 3문항의 가중치를 고려하였고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가계소득에 대해 걱정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나. 재정안정도

주부의 재정안정도 척도는 Beutler와 Sahlbergh (1979), Davis와 Helmick(1985), Titus, Hira와 Fanslow(1989)의 재정만족 척도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소득과 저축의 비율에 대한 만족도, 재정적 위험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수준에 대한 만족, 미래 은퇴시기에 대한 재정적 안정에 대한 만족, 가정의 순자산 정도에 대한 만족의 4문항으로 5점 Liker Type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재정안정에 대한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 재정문제곤경도

주부의 재정문제곤경도 척도역시 미국의 NC-90 연구 프로젝트의 재정문제 척도에 근거를 두었다. 가계소비 지출비목 분류를 기초로 음식물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잡비의 각각 2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Type 척도로 합산점수가 낮을수록 재정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자료의 모집 및 분석방법

본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1990년 9월 20일부터

24일 까지 월평균가계소득, 가족생활주기등을 고려한 100명을 조사하였고 결과분석후 일부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 9월 30일부터 10월17일까지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최종 455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PC SAS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일원분산분석을 적용하여 F-test와 T-test, 중회귀분석,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간의 체계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적용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부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41.1%로 가장 많고 가구원수는 4명이 45.9%, 주부의 학력은 고졸이상이 72.6%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은 15만원미만이 32.1%, 15만원~36만원미만이 37.4%, 36만원~150만원이 30.5%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가구주의 직업은 모든 직업에 고루 분포하고, 주부의 직업은 가정주부가 60.2%, 판매·서비스직이 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대 순자산의 비율은 부채가 없는 집단이 53.9%이고 경제적 긴장상태를 보이는 부채가 있는 집단이 46.1%이다.

IV. 결과 및 해석

1. 투입변수와 변환변수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

자원과 요구의 투입변수와 가계관리의 변환변수가 도시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와 F-test, T-test를 실시하였고, 하위집단간의 의미있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재정복지는 가계소득적정도와 재정안정도와 재정문제곤경도의 가중치의 합으로 환산 조정되었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가. 자원변수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
주부연령에 따른 도시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는

표 1. 자원변수와 요구변수, 가계관리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 (N=445)

| 주관적 재정복지 | | | | 요구변수 | | | | | |
|------------------|-----------|------|--------------------|------------------|--------------------|-------------|-----------|--------------|----------|
| 변수 | 집단 | 빈도 | 평균 D F값T값 | 변수 | 집단 | 빈도 | 평균 D F값T값 | | |
| 주부 | 20대 | 38 | 1389.17 B | 부채대 순자산 비율 | 0보다 크거나작음 | 181 | 1201.04 | | |
| | 30대 | 154 | 1242.61 B | | 0 | 216 | 1392.85 | T= 6.68 | |
| | 40대 | 186 | 1320.01 B F= 2.91 | | 열망 성취도 상 | 하 0.1 - 0.3 | 104 | 929.09 C | |
| | 50대 | 53 | 1374.54 A | | | 중 0.4 - 0.6 | 211 | 1211.35 B | F=191.26 |
| | 60대 | 15 | 1417.00 A | | | 상 0.7 - 1 | 133 | 1512.41 A | |
| | 가 | 2명 | 19 | | | 1283.18 A | 기대 | 상 1.11 - 0.6 | 103 |
| 구 | 3명 | 68 | 1215.91 A | 성취도 | 하 0.42 - 1 | 343 | 1213.86 | T= 6.68 | |
| 원 | 4명 | 209 | 1184.62 A F= 0.66 | 상대적 | 하 -5 - 0 | 201 | 1425.89 | | |
| 수 | 5명이상 | 157 | 1158.40 A | 박탈감 | 상 1 - 5 | 245 | 1200.71 | T= 4.91 | |
| 주부 학력 | 중졸이하 | 123 | 989.77 C | 경제수준 | 하 -5 - 0 | 132 | 1161.28 | | |
| | 고졸 | 170 | 1250.73 B F= 80.46 | 상승감 | 상 1 - 5 | 314 | 1240.43 | T= -3.45 | |
| | 대졸이상 | 145 | 1507.59 A | 가계 관리 계획 | 하 8 -24 | 85 | 1150.12 B | | |
| 주부 직업 | 전문직 | 49 | 1452.79 C | | 중 25 -32 | 291 | 1300.21 A | F= 6.50 | |
| | 무직(전업주부) | 268 | 1199.88 B F= 26.77 | | 상 33 -40 | 70 | 1357.33 A | | |
| | 비전문직 | 129 | 1083.41 A | 가계 관리 수행 | 하 8 -24 | 141 | 1172.48 B | | |
| 가 | 주 | 전문직 | 195 | | 1360.08 C | 중 25 -31 | 249 | 1271.37 A | F= 8.75 |
| 구 | 직업 | 비전문직 | 224 | | 1087.50 B F= 68.11 | 상 32 -40 | 55 | 1348.07 A | |
| 1인당 월평균 소득 | 15만원이하 | 144 | 1030.80 C | 가계 관리 | 하 16 -47 | 74 | 1122.25 B | | |
| | 15만원-36만원 | 165 | 1300.63 B F=173.14 | | 중 48 -60 | 265 | 1205.71 A | F= 5.80 | |
| | 37만원이상 | 137 | 1509.14 A | | 상 61 -80 | 82 | 1384.02 A | | |

*p<.05, **p<.01, ***<.001

#D는 Duncan Multiple Range Test에 의한 집단화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본 결과 20대~40대집단과 50대~60대집단간에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주부들이 50~60대에는 가계의 최 절정기이거나 은퇴후의 재정적 준비의 안정성으로 재정적 상태가 완숙기에 접어들며, 가족생활주기 상 축소기로 경제적 긴장이 정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관적 재정복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반해 20대, 30대, 40대집단은 가족생활주기상 확대기이며, 교육비, 주택마련등의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긴장을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부의 학력에 따라서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재정복지를 높게 인식한다는 김숙이

(1988)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며, 세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에 대한 일반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남편과 유사한 학력등으로 더 높은 경제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부의 직업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는 전문직 종사자, 가정주부, 비전문직 순으로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가 자신의 경제력에 대한 확신과 가족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가 높기 때문에 순자산이나 가계소득적정도등의 경제상황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진다는 Hira(197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또한 무직과 비전문직 종사자간의 재정복지의 수준 차이는 비전문직 종사 주부들이 가정의 생활보조의 수단으로서 자의적인

직업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아 전업주부보다 낮은 재정복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는 전문직, 비전문직, 무직집단의 순으로 재정복지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구주의 직업과 학력간은 강한 결합관계에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재정문제를 덜 경험한다는 Williams, Nall과 Deck(197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과 주관적 재정복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가정의 재정복지에 더 만족하고 있어 Ahmad(1975)와 Danielewicz(197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채대 순자산비율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는 부채유·무에 따른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소득이나 자산의 양과 함께 부채의 존재자체가 가정의 재정상태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자산에 대한 순부채의 비율 존재자체가 재정만족과 가계수행에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한 Scannell(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가구원수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는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요구변수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

열망성취도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는 열망성취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관적인 현재의 위치에 대한 판단정도가 주관적 재정복지에 결정적인 변수임을 제시하고 있다. 기대성취도는 주관적 재정복지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주관적 재정복지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수준상승감 척도도 주관적 재정복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과 주관적 재정복지 관계는 상대적 박탈감이 적을수록 가정의 재정복지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웃이나 친지등의 생활과 비교할 때 객관적인 자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위 환경과의 상대적 우위나 열등의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Campbell(197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다. 가계관리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

가계관리능력은 주관적 재정복지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가계관리 능력의 각 상·중·하 집단은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하위영역인 가계관리계획과 가계관리수행 역시 상·중·하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가계관리능력 수준이 순자산과 재정만족도에 대한 정적인 영향을 제시한 Titus, Fanslow와 Hira(1989)의 연구와 일치한다.

2.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제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관련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1차 중회귀분석을 하였고 그결과는 표 2이며 적률상관관계분석은 표 3과 같다.

회귀분석에는 분산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가구원수를 제외하였고 가계관리는 연구모형을 고려하여 계획과 수행 두변수를 합하여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또한 열망성취도는 몇변수와 다중공선성이 제기되었으나, VIF의 수행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해결되어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1차 회귀분석결과, 가계관리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에서는 열망성취도,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주부학력, 경제수준상승감 변수가 유의하였으며, 12.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주관적 재정복지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에는 열망성취도,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가계관리능력, 가구주 직업의 순으로 제변수들이 유의하였고 64.2%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재정복지와 하위 종속변수에 대해 열망성취도와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이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3.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제변수들의 인과적 관계

1차 회귀분석결과를 기초로 경로모형의 설정을 위한 최종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매개변수인 가계관리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은 열망

표 2. 제변수들의 주관적 재정복지 및 하위영역에 대한 회귀분석표

| 종속변수 | 독립변수(β) | | | | | | | | | | |
|------------------|---------|------|------|-------|-------|----------|-------|-------|-------|--------|------|
| | 주부연령 | 주부학력 | 주부직업 | 가구주직업 | 1인당소득 | 부채와순자산비율 | 열망성취도 | 기대성취도 | 경제상승감 | 상대적박탈감 | 가계관리 |
| 가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R ² = | .127 | .183 | | | -.201 | | .267 | | | -.123 | |
| F = | 5.306 | | | | | | | | | | |
| 주관적 재정복지 | | | | . | *** | | *** | | | | . |
| R ² = | .642 | | | .096 | .270 | | .411 | | | | .106 |
| F = | 58.961 | | | | | | | | | | |

*p<.05, **p<.01, ***p<.001

표 3. 제변수들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N=455)

| 변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 1 주부연령 | - | | | | | | | | | | | | | | |
| 2 가구원수 | .333 | - | | | | | | | | | | | | | |
| 3 주부학력 | -.062 | -.124 | - | | | | | | | | | | | | |
| 4 주부직업 | -.005 | -.072 | .303 | - | | | | | | | | | | | |
| 5 가구주직업 | .074 | -.043 | .534 | .155 | - | | | | | | | | | | |
| 6 1인당가계소득 | .089 | -.356 | .547 | .341 | .540 | - | | | | | | | | | |
| 7 부채대순자산비율 | -.043 | .061 | -.071 | -.028 | -.129 | -.081 | - | | | | | | | | |
| 8 열망성취도 | .223 | -.010 | .498 | .207 | .528 | .644 | -.140 | - | | | | | | | |
| 9 기대성취도 | -.283 | -.029 | -.251 | -.143 | -.312 | -.370 | .075 | -.643 | - | | | | | | |
| 10 경제수준상승감 | -.050 | .070 | .129 | .068 | .127 | .104 | -.012 | .295 | -.164 | - | | | | | |
| 11 상대적 박탈감 | .135 | .001 | -.301 | -.169 | -.341 | -.419 | .105 | -.640 | .445 | -.233 | - | | | | |
| 12 가계관리계획 | -.285 | .080 | .132 | .004 | .149 | .018 | -.051 | .149 | -.083 | .025 | -.128 | - | | | |
| 13 가계관리수행 | -.045 | -.174 | .290 | .090 | .254 | .169 | -.131 | .235 | -.078 | -.026 | -.143 | .554 | - | | |
| 14 가계관리 | -.040 | .029 | .234 | .044 | .227 | .107 | -.111 | -.211 | -.091 | -.013 | -.146 | -.871 | .881 | - | |
| 15 주관적재정복지 | .113 | -.065 | .499 | .242 | .542 | .664 | -.112 | .746 | -.491 | .223 | -.466 | .195 | .236 | .249 | - |
| 평균(×) | 40.78 | 4.25 | 11.95 | 1.13 | 3.76 | 313358 | 0.09 | 0.51 | 1.38 | 0.97 | 0.96 | 28.42 | 26.72 | 55.11 | 560.1 |
| 표준편차(SD) | 8.43 | 1.04 | 3.12 | 1.96 | 3.19 | 234386 | 0.59 | 0.20 | 0.50 | 1.36 | 2.18 | 4.03 | 4.22 | 7.22 | 135.1 |

표 4. 경로모형의 설정을 위한 회귀분석표

| 종속변수 | R ² | 독립변수 | B | |
|----------|-----------------------|------------|---------|---------|
| | F값 C값 | | B | β |
| 가계관리 | R ² = .087 | 주부학력 | .511 | .222*** |
| | ... | 1인당월평균가계소득 | -.00005 | -.166* |
| | F = 9.891 | 열망성취도 | 8.660 | .235** |
| | C = 46.608 | | | |
| 주관적 재정복지 | R ² = .635 | 가구주직업 | 6.763 | .113* |
| | ... | 1인당월평균가계소득 | .000016 | .276*** |
| | F = 184.322 | 열망성취도 | 329.736 | .487*** |
| | C = 216.684 | 가계관리 | 1.739 | .093* |

*p<.05, **p.01, ***<.001

성취도($\beta=0.235$)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그 다음으로 주부학력($\beta=0.222$),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beta=-0.166$)의 순위로 영향을 미치며 가계관리에 대한 세변수의 설명력은 8.7% ($R^2: .087$)이다. 즉 열망성취도가 높을수록, 주부학력이 높을수록,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이 적을수록 가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가계관리에 대한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의 부적 영향력을 제시한 것으로,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가계관리를 더 잘 수행한다는 Titus, Fanslow와 Hira(1989)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가족구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계의 경제적 자원이 제한되고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이고 세밀한 관리계획과 수행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관적 재정복지는 열망성취도($\beta=0.487$),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beta=0.276$), 가구주직업($\beta=0.113$), 가계관리($\beta=0.093$)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주관적 재정복지의 63.5% ($R^2: .635$)를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열망성취도가 크면 클수록,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주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가계관리 능력이 높을수록, 높은수준의 주관적 재정복지를 인지한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 각 종속변수에 열망성취도와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은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표 4의 최종회귀분석의 결과 제시된 각 종속변

수에 대한 세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기본으로 하여 경로계수와 경로모형을 구하였다.

표 5는 경로모형을 위한 각각의 독립변수들의 인과적 효과와 비인과적 효과를 나타냈으며 그림 3은 이에 근거한 경로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표 5에서 보면 주부학력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총효과는($r= .499$)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상당히 약한 간접효과(.021)만이 존재한다. 이는 주부의 학력이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총효과나 분산분석을 통한 상대적 영향력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개변수인 가계관리를 통해 관리지식이나 관리전략의 수용여부 등과 밀접히 관계되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부각되었거나, 또는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이나 열망성취도의 상대적 기여도의 차이에서 학력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상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가구주직업의 총효과($r = .542$)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독립적인 변수로써 정적인 직접효과($\beta=0.113$)를 가지며, 매개변수인 가계관리를 통한 간접효과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는 가구주직업은 소득과 관련되어 매개변수인 주부의 가계관리 능력과 관계없는 직접적인 객관적 영향요인으로 해석된다.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의 총효과($r=.664$)는 주관적 재정복지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고, 직접효과($\beta=0.276$)와 가계관리 통한 부적인 간접효과(-0.015)를 지닌다. 이는 경제수준이 향상되면 가계의 긴

표 5. 가계관리와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총 경로효과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인과적효과 | | 비인과적효과 | 총효과 |
|--|------------|---------|-------|--------|---------|
| |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 |
| 가계관리 R ² = .087 F = 9.891 | 주부학력 | .222*** | | .012 | .234*** |
| | 1인당월평균가계소득 | -.166* | | .273 | .107*** |
| | 열망성취도 | .235** | | -.024 | .211** |
| | | | | | |
| 주관적 재정복지 R ² = .635 F = 184.322 | 주부학력 | | .021 | .478 | .499*** |
| | 가구주직업 | .113* | | .429 | .542*** |
| | 1인당월평균가계소득 | .276*** | -.015 | .409 | .664*** |
| | 열망성취도 | .487*** | .022 | .237 | .746*** |
| | 가계관리 | .093* | | .156 | .249*** |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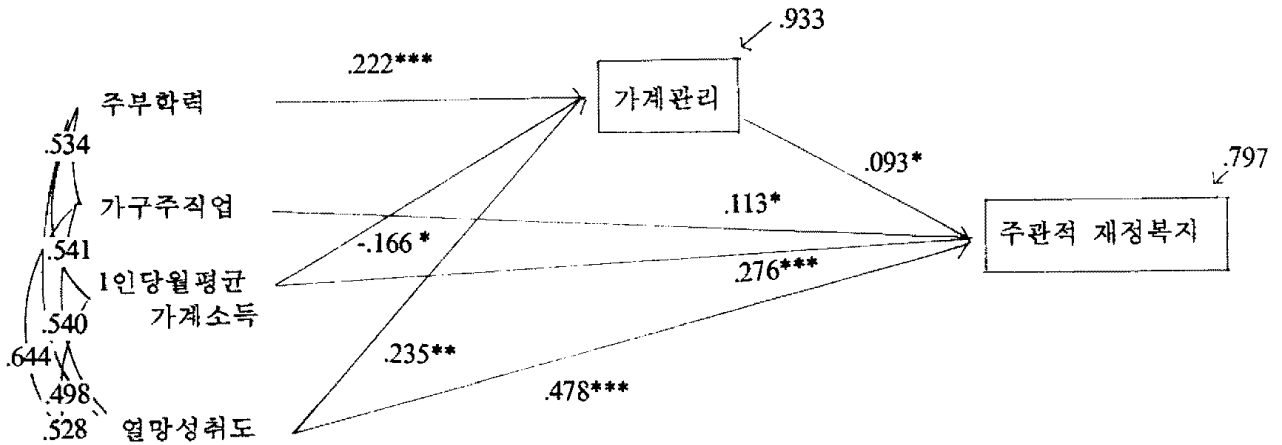


그림. 주관적 재정복지의 경로모형.

측적 요인이 많이 제거되기 때문에 가계관리 수행능력이 다소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가계관리를 통한 간접효과는 매우 미약하여 인과적 효과는 대부분 직접효과에 의해 설명된다. 부채대 순자산의 비율은 T-test에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회귀식에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원변수에서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과 가구주직업등의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에 기인한 것으로, 재정복지에 대한 가계소득의 영향력이 미약하여 상대적으로 부채와 자산의 비율의 영향력이 강한 Scannel(1990)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열망성취도의 총효과($r = .746$)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정적인 직접효과($\beta = 0.487$)와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022)가 있다. 이 간접효과는 효율적 가계관리를 통한 경제적 실익이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낮은 열망성취도를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 높은 인과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총효과($r = .233$)가 정적으로 제시된 경제수준상승감은 1차 회귀분석에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최종회귀식에서는 유의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상대적 박탈감, 경제수준상승감이 주관적 재정복지에 독립적 영향을 미친다는 임정(1988), Emmoms와 Diener(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열망성취도와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의 회귀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재변수의 영향력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변수인 가계관리는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총효과($r = .249$)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며, 변수자체가 독립적으로 정적인 직접효과($\beta = 0.093$)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제 변수들의 설명력은 63.5% ($R^2 : .635$)이며 가장 큰 기여 변수는 열망성취도이고,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가구주직업, 가계관리, 주부의 학력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가구주직업, 열망성취도,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가계관리의 직접효과와 동시에 매개변수인 가계관리를 통한 주부학력,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열망성취도의 간접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순자산만족과 가계만족에 대한 가계관리자의 능력의 직접효과를 제시한 Titus, Fanslow와 Hira(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가계관리자의 능력에 대한 교육과 효과적 가계관리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이 재정만족도에 직접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가계관리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Titus(1989)등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과 가계관리간의 상대적 영향력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경제인식, 가계관리 태도 및 능력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Titus 등의 연구는 미국가정을 조사한 것으로 그들은 직접적인 가계소득의 영향력보다는 가정 주부의 효율적 능력에 따라 주관적인 경제복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가계관리적 측면이 강조되었고, 본 연구는 가계소득이 한 가정의 재정복지의 제1의 결정요인임을 나타낸 것으로 선진 경제사회에서 복지의 비경제적·비화폐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Cambell(1976)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와 Titus등의 연구결과와의 차이를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능동적인 가계관리능력보다 가계소득등의 상대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가계관리능력의 증진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열망성취도의 직접효과는 가정의 재정만족도에 대한 열망성취도의 직접효과를 제시한 Davis 와

Helmick(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체계론적 관점에서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다. 주부학력,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열망성취도의 투입요소는 변환변수인 가계관리에 직접효과를 나타내며, 동시에 가계관리를 통해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간접효과를 나타내어 체계모형을 통한 각 변수의 관련성이 제시되었다.

V. 요약 및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수 있다.

첫째, 도시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수준은 자원과 요구의 투입변수와 가계관리인 변환변수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신혼기나 중년기에 높은 재정복지 수준을 보이며,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부의 직업, 가구주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순자산대 부채의 비율이 제기되지 않을때, 열망성취도, 기대성취도, 경제수준상승감이 높을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낮을수록 주관적 재정복지를 높게 인식하였다.

둘째, 가계관리는 주관적 재정복지수준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주부의 가계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재정복지 수준은 더 높아졌다.

셋째,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제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에서는 가구주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열망성취도가 높을수록, 가계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해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도시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변수인 가계관리는 주부의 학력,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열망성취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주관적 재정복지는 가계관리, 가구주직업,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 열망성취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최종 종속변수와 내생변수에 공통으로 직접효과를 제시한 1인당 월평균가계소득과 열망성취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적 재정복지의 경로모형에서 가계관리는 그 영향력 정도는 약하나 투입과 산출을

있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어 주부의 가계관리 능력에 따라서 가계의 주관적 재정복지 수준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나타냈고, 투입과 변환, 산출의 체계모델이 검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계관리의 하위영역은 Ferber의 가계관리행동의 4영역을 기준으로 하였고 재정복지의 하위영역은 가계소득적정도, 재정안정도, 재정문제곤경도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러한 하위영역은 다른 변수의 대체나 조합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다 정교한 모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관적 재정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관리의 인과관계 검증이 연구의 목적으로서 전체관리영역에 해당하는 각 점수의 합을 척도화하였기 때문에 하위영역의 비교 분석을 위한 방안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관적 재정복지를 설명하는 객관적 지표의 변수인 부채대 순자산의 비율등을 적용한 실증연구의 필요성과 체계론적 관점에서 주관적 재정복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각 개념에 더욱 잘 부합되는 정밀한 척도의 개발과 투입-변환-산출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숙이(1988). 도시주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순미(1986). 도시가계의 금융자산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중산층 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영모(1980). 한국인의 계층구조와 그 이동에 관한 연구. *중대논문집*, 24, 383-423.
- 4) 문숙재(1990). 가정관리이론 정립의 체계론적 접근에 관한 비교연구(I). *이화가정학 60주년 기념교수 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편, 119-145.
- 5) 윤정혜(1986). 도시 저소득층소비자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 - 서울과 인천의 주부를 중심으로

-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67-88.
- 6) 윤정혜·이은재(1989). 도시 저소득층 소비자의 구매장소범위와 정보탐색행동. *대한가정학회지* 27(4), 85-103.
- 7) 여정성(1989). 소비자 정보탐색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15-24.
- 8) 임 정(1988). 주부의 가계복지인지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홍향숙(1989).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생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1-14.
- 10) Abdel-Ghany, M. & S.Y. Nickolas(1984). Consumer, Consumption, and Family economics household management research, 1972-82: survey of the Past and outlook for futur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265-278.
- 11) Balakrishnan, R., F.M. Firebaugh & K. Stafford (1986). Research on rural family resource management: A Third world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185-193.
- 12) Beutler, I.F. & D.A. Herrin(1987). Environmental context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1, 295-304.
- 13) Beutler, I.F. & D.A. Herrin & K.M. Sahlberg (1979). Spending plans and the Family Managerial Decision Proces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480-486.
- 14) Crawford, C.E. & I.F. Beutler(1983).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Consumer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45-58.
- 15) Davis, E.P. & S.A. Helmick(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 (1), 123-131.
- 16) Davis, E.P. & J.A. Weber(1990). Patterns and Obstacles to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1, 41-52.
- 17)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3), 542-575.
- 18) Emmons, R.A. & E. Diener(1985). Factors predicting satisfaction judgement: A comparative exa-

- min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157-167.
- 19) Ferber, R.(1973). Family Decision Making and Economic Behavior. in E.B. Sheldon (Ed.) *Family economic Behavior ; Problems and Perspects*. Philadelphia ; Lippincott. 29-57.
- 20) Godwin, D. & D.D. Carroll(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 and behavior of husband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 21) Hafstrom, J.L. & M.M. Dunsing(1973). Level of living :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 (2), 119-132.
- 22) Heck, R.K. & R.A. Douthitt(1982). Research Modelling implications of conceptual Framework in Family managemen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265-276.
- 23) Heck, R.K.(1983). A Preliminary Test of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117-135.
- 24) Hira, T.K.(1987). Money Management practices influencing household asset ownership.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1, 183-194.
- 25) Lown, J.M.(1986). Family Financial well-being : Guidance from Research. *Journal of Home Economics* 78 (4), 5-8.
- 26) Rowland, V.T., R.A. Dodder & S.Y. Nickolas(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 ; Development of a sca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 (2), 218-225.
- 27) Scannell, E.(1990). Daily Farm Families'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1, 133-146.
- 28) Slusher, B.J.(1990). Are Financial Management Programs Helping Families ?. *Advancing The Consumer Interest* 2 (2), 13-18.
- 29) Strumple, B.(1973). Economic Life-Style, Values, and Subjective Welfare ; An Empirical Approach. in E.B. Sheldon (Ed.), *Family Economic Behavior ; problems and perspects*. Philadelphia ; Lippincott. 70-124.
- 30) Suranyi-Unger, T. Jr.(1981). Consumer behavior and consumer well-be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218-225.
- 31) Titus, P.M., A.M. Fanslow & T.K. Hira(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 (4), 309-317.
- 32) Vermunt, R., E. Spanss & F. Zorge(1989). Satisfaction, Happiness, and Well- Being of Dutch Stud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21, 1-33.
- 33) Wihlelm, M.S, D.R. Iams & J. Rudd(1987). Husbands and Wife Agreement on Indicator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s Well-be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 (1), 13-22.
- 34) Williams, F.L. & R. Berry(1984). Intensity of Family Disagreement Over Finances and Associated factor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8, 33-53.
- 35) Williams, F.L. & M. Nall & P.Z. Deck(1976). Financial Problems of Urban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 (3), 185-196.

